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사회적 경제 해법 모색

김승수 전주시장, 북중미 순방 중 카를로스 대통령과 면담 코스타리카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워크숍도 참석

김승수 전주시장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선택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만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의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박 13일간의 일정으로 북중미를 순방중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지시간으로 8일(한국시간 9일 새벽)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영부인, 부통령을 면담했다.

이번 북중미 순방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한국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다른 회원도시 단체인,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대표단에 참여해 코스타리카를 방문 중이다.

김 시장이 이날 면담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39)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로 각국의 사회적경제분야 우수 사례를 수집해 코스타리카의 사회적경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이날 면담도 한국과 코스타리카 간 사회적경제 분야의 우수 사례와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기 위한 교류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 시장은 코스타리카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코스타리카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장단 워크숍에서 그간 전주시가 추진해온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스타리카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장단 워크숍에 참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받았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관계자는 "코스타리카 대통령과의 면담, 각 부처 장관과의 워크숍을 통해 세계 속

의 전주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사회적경제분야와 도시재생 분야의 우수 정책도 소개했다"며, "이번 면담이 코스타리카의 사회적경제·도시재생의

우수한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만큼 전주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도서관에서 만나는 '하이데거와 삶의 의미'

전주시립 삼천도서관 김동규 철학자 초청 특강

전주시가 삶의 반짝이는 가치들을 찾는 여정을 담은 책 '모든 것은 빛난다'의 번역가와 시민과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했다.

전주시립 삼천도서관은 9일 도서관 3층 교양교실에서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함께 읽기 공모사업의 1차 주제도서인 '모든 것은 빛난다'의 번역가인 김동규 철학자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김동규 번역가는 하이데거를 비롯한 유럽 현대 철학과 미학이 주요 전공 분야인 철학자로 △멜랑콜리아: 서양 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철학의 모티브: 예술, 존재, 하이데거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공저)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또 번역서로는 △모든 것은 빛난다 △마틴 하이데거: 너무나 근본적인 △미학적 힘: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개념 등이 있다.

김 번역가는 이날 특강에서 본인의 집필인 '하이데거와 삶의 의미'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참석한 시민들에게 1차 주제도서인 '모든 것은 빛난다'의 번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민들과 함께 허무와 무기력의 시대에 삶의 의미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삼천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오는 16일 후속모임을 마지막으로 제1차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오는 30일부터는 이선 인문강사와 함께 제2차 '사랑은 사치일까 사랑의 배움과 실천' 함께 읽기가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ju.go.kr)를 참고하거나, 삼천도서관 일반자료실(063-281-6463~4)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아이 낳기 원해요' ...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전주시보건소, 이달부터 시술 대상자 연령 제한 폐지 지원횟수도 크게 늘어

연령제한 기준 폐지·지원횟수 확대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도 늘려

전주시가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이달부터 난임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기존 만44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 기준이 폐지돼 모든 시술 희망자가 난임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과 횟수도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과 인공수정(3회) 등 10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과 인공수정(5회)을 포함한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인 17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착상양도체 △유산 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 비급여 및 전액·일부본인부담금으로, 보건소는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달부터 추가된 지원분(신선5회차~7회, 동결4회차~5회, 인공4회차~5회)에 대해서는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달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표적으로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지원시술(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까지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받게 됐다. 단, 추가 확대분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기존 연령 기준(만44세 이하)의 산모가 기존의 시술횟수(10회)까지 적용받는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4억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난임 및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정서적 심리적 건강증진,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난임부부는 중앙상담센터(02-2276-2276)와 각 권역 센터로 상담을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허위 보험 계약체결로 수당 챙겨

경찰, 11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사기 혐의로 구속

허위로 보험에 가입하고 거액의 수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 등 64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계약 및 유지수당 등을 받기 위해 아내와 지인 등 64명을 동원, 모두 111건의 보험 계약을 허위로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 남부 기준으로 매달 100만원가량의 종신 보험 상품에 가입 후 2년간 유지하면 한 건당 100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내가

대신 내줄 것"이라며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한 뒤 해지환급금을 받아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험계약서 작성을 권유, 범행에 끌어들이었다.

이렇게 챙긴 수당은 모두 11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수당을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보험금 납부가 지연되고,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범행이 들쭉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욕심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 사기 피해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돌아간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더 이상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세요!'

전주시, 강상원 휴먼리소스코리아 부사장 초청 열린시민강좌

제196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9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예방'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강상원 휴먼리소스코리아 부사장이 강사로 초청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하우를 들려줬다. 신 강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및 상호금융회 사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신용관리 및 보이스피싱 등 경제금융강의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신 강사는 최근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에서 △금융사기 종류 △금융사기 유형별 개념 및 사례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및 구제방법 등을 주제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과 대응요령,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 강사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돼 아차하는 순간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과 피해 구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문화공연으로 효자 3중 주인공차프르



그럼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운고를 크로마하프 앙상블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토크(talk talk)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강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열린시민강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강좌는 오는 23일 김형석 철학자의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디자인가구·생활한복, '바이전주 우수제품' 되다

전주시, 전일기업·손쌍에 우수업체 인증서 전달

전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일기업의 디자인가구, (주)손쌍의 생활한복 등 2개 제품을 전주시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바이전주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전주시청 부시장실에서 두 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바이전주 인증사업은 우수업체 육성 및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주시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이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8년부터 이 같은 기업 지원시책을 펼쳐오고 있다.

인증제품 중 전일기업의 디자인가구의 경우 관공서와 학교 등에 필요한 가구에 도입되는 디자인을 고요로 인

쇄해 가구의 질을 높여 일반 가구와 차별화된 제품으로 정평 나갔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하이그로스고열인 특허 인증을 받기도 했다.

또 (주)손쌍의 생활한복의 경우 한복 고유의 멋에 활동성까지 더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국내외 온라인몰과 직영매장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81건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우수상품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한편 우수상품 홍보 지원과 각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또 선정 업체들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3.5% 이차보전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바이전주운영위원회를 열어 우수상품 신규 선정 심사를 거쳐 이들 업체를 선정하고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신규 선정된 업체, 재지정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바이전주 인증기업이 전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일기업의 디자인가구, (주)손쌍의 생활한복 등 2개 제품을 전주시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바이전주 우수제품'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